

그 밑에 鑰製 심지돈이가 달렸다.

釉調는 良好하고 가리질, 유약 먹이기, 막손질, 굽기에 이르기까지 精緻하여 此類로는 社內에서 第一級에 속하는 것이나 아깝게도 花盤二處가 破損되었다가 후에 修理된 점이 유감스럽다.

釉藥에 石灰質을 많이 넣은 점과 胎質에서 不精確하나 珪石質이 檢出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文房具類가 盛行하기 以前의 作品으로 推定함이 타당치 않을까 생각된다.

(4) 靑華 白磁 盞臺形 燭臺

總高 三・七cm 臺 徑一三・六cm

底徑 七・三cm 內孔徑 二・二cm

乳白色 靑으로 內底에 圓輪을 그리고 圓輪에서 內向하여 野草文과 葡萄文을 그렸다. 굽 아래쪽에도 靑華로 單線을 돌렸다. 器體는 盞臺形인데 周緣은 굽고 주연보다 一段 낮게 平滑한 內底가 있고 그 中央에 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아래로 등글게 파진 구멍이 있다. (深一・二cm) 굽은 충분히 높아 器形全體의 均衡을 맞추어 주었는데 器體는 整齊하다. 釉調는 良好하나 間或 酸化鐵分이 섞인 잡티가 눈에 뜨인다. 上級完好品이나 十六世紀頃의 作品으로 推定된다.

(5) 白磁 陽刻 梅花文 燭臺

總高 一一・八cm 盤徑 一〇・一cm

조꽃이高 一一・七cm 口徑 二・六cm

帶靑色 조꽃이——上促下寬의 細長圓筒形——表面과 圓形承盤內底全面에 梅花文을 陽刻하였는데 瓣이나 간 줄기와 間間이 달린 봉오리, 사방으로 뻗친 가지의 중간에 滿開한 꽃이 들 혹은 셋씩 양각되는 構圖로 處理하였는데 全面을 무늬로 덮었으면서도 복잡하지 않게 간결히 다룬 솜씨, 경직하게 뻗은 가지에 이제 막 필듯한 봉오리를 쪼갬듯 부드럽게 한 솜씨 등 작품을 만든 공장의 능숙하고도 활달한 수법, 놀라운 작품이다. 죽소울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만들었으리라 보여지는 문양의 책임자에 비하여 조꽃이를 承盤中央에 固定시키지 않고 빼뜨림하게 부쳐 놓은 잘

못을 저질른 것은 오히려 백자다음고 공장의 훌륭한 유모어가 보여 재미있다.

釉調는 好奢하나 가볍게 다룬 施釉의 不注意로 손잡았던 자국엔 剝地部面이 생겼다. 뜻대로는 上級完好品, 대략 十六世紀頃의 作品인 듯하다.

이상에 소개한 이외에 作品自體는 美學的으로 卓越하지 못하나 資料로서는 充分한 것들이 多數 있으나 여기서는 우선 이만 줄이고 다음 기회로 밀우겠다.

丁茶山の 山水圖

孟 仁 在

紙本淡彩 二六×三一・七cm 金 庠 基 藏

元來는 二六×一六cm 程度의 畫冊이던 것을 一面만 떼 것으로 한가운데 접혔던 흔적이 있다. 淡朱, 淡綠 彩色은 아직 鮮妍하다.

右上部에는

輓榭肥梧葉正舒

此株枯木獨蕭疏

范寬筆意徐熙墨

好向殘山剩水據

冽樵

란 七言律詩를 墨書했으며 左下隅에는 「顯周私印」(陰文方印) 一顆가 있다.

丁若鏞(一七六一——一八三六), 字는 美庸, 號 茶山 俊菴 與猶堂 京畿廣州 荅川 出身이며 恭齊尹 斗緒는 그 外曾考였다. 일찍 西學에 關聯되어 十九年間의 康津流配에서 풀려난 것은 純祖十七年(一八一八) 이었고 冽樵는 이때 以後의 雅號인 듯하다. 그림은 아마 五十六歲以後 그가世



蘇州地枯第二  
 此林枯木潤蒼松  
 蘇州地枯第二  
 此林枯木潤蒼松  
 潤

間에서 물러나 있을 때의 것일 것이며 題詩에 나타나 있듯이 그의 그림에 대한 識見은 相當히 높았던 듯하다. 도토리나무와梧桐나무또 하나의 枯木을 主位로 殘山과 剩水를 그리고 있으며 桐葉의 淡綠은 구슬처럼 곱다. 도토리나무의 墨色도 蒼潤, 南唐의 花鳥畫家 徐熙의 沒骨法을 自處하였고 岩山은 五代宋初 范寬의 山骨法을 聯想하면서 느끼게 渴筆寫하고 있다. 題詩에 關聯되는 歷史上의 畫人들은 殘山剩水의 馬, 夏를 넣는다면 네사람이나 된다. 그러나 그들의 畫格이 加味는 되었어도 理想化된 그림은 아니며 特히 右便에 展開되는 山은 내와 느끼게 傾斜진 野山은 修飾없는 우리 나라의 山水를 나타내고 있다. 遠山은 減筆法에 의하여 一筆로 淡靑彩하였고 도토리나무의 混點과 岩山의 點蓋는 뚜렷이 畫面에 抑揚을 주고 있다. 茶山은 勿論大學者지만 專門家를 超越한 文人畫家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左下隅 藏印의 主人公 洪顯周는 正祖大王의 駙馬라는 것 以外에 더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 山水는 故潤松의 舊藏, 金庠基先生께서 回甲月餘前에 받으신 것이

다. 潤松은 이에 대하여 아무言表도 없었으나 그날의 快飲으로 아슬러 回甲을 豫祝했음이 分明하다.

### 密陽舞鳳寺의 石造光背와 石佛坐像

鄭 永 鎬

密陽邑 舞鳳寺 ①에는 堂宇로 二棟이 있는바 그中 七星閣에는 石造光背가 一座……大雄殿에는 石佛坐像이 一軀遺存되어 있어 注目되어 오던中 지난 一月初에 同人, 黃壽永 秦弘燮 兩氏의 周旋으로 同寺를 訪問하여 調査한 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려한다. 傳聞한 바에 依하면 此遺物들은 모두 隣近의 嶺南寺址 ②에서 移置되었으며 그中 光背는 出土品이라고 한다 (住持 林法泉和尚 및 洞人들의 談話)

註

① 邑內 舞鳳山麓에 嶺南樓가 있고 이 곳에서 約一〇〇m 떨어진 山中턱에 舞鳳寺가 位置하였다. 原來는 衙東山舞鳳寺이었으나 오늘날에는 舞鳳山이라 改稱되었으니 이것은 곧 「舞鳳寺」名에서 由來된 것이라함 (住持談話)

② 嶺南寺址에 對하여서는 東國輿地勝覽卷之二十六 密陽郡護府樓 亭條 嶺南樓에……在客館東. 即古嶺南寺之小樓. 寺廢. 至元乙巳. 金湊爲知郡. 因舊改創. 因以寺名名之. 云云……라 있어 古刹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嶺南樓名의 由來도 찾을 수 있다.

#### 一、石造光背

花崗石製이며 埋沒되어 있었으므로 各部에 土色이 보인다. 舟形光背로 表面의 彎曲度는 큰便이 아니다. 化佛이 配置된 火焰二重輪光으로서 高一五一cm 廣幅一〇〇cm 下幅七五cm의 完品이다. 二組의 陽刻線으로 頭身光을 區分하였는데 頭光은 中心이 垂下된 圓座(徑四五cm)를 八瓣의 單蓮文으로 둘러싸고 그 周邊에 唐草文이 있으며 이 唐草文帶는 다시 左右로 내려와서 身光을 區劃하였다. 光背의 下部에 이르러서는 雲文이 있